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제와 부산의 요새

김 윤 미*

1. 머리말
2. '조선해협'과 부산항 방어
3. '조선해협요새계' 지정과 부산의 요새 건설
4. 물자·병력 수송과 부산의 요새 강화
5. 부산요새사령부 설치와 동남해안 방어
6. 맺음말

1. 머리말

일제시기 부산은 조선을 떠나거나 들어오는 길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드나들었다. 전쟁의 마지막까지 군사적 요새지역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집결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때 구축된 군사유적들은 아직까지 부산 곳곳에 남아있다. 가덕도에는 러일전쟁기에 구축된 일본군 주둔지가 그 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용호동에는 장차등포대가

*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¹⁾ 남포동에는 부산요새사령부가 위치했고, 서면에는 일본군 그리고 미군이 주둔한 지역이 있다.

이와 함께 부산에는 일본군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 일제기시 아카자키라고 불린 적기만(赤崎灣), 즉, 현재의 감만동·우암동·용당동·용호동 일대에 관한 것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1983년 일제시기 부산의 잠수함기지와 군수물자기지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발견되었는데, 군에서 추가조사를 거절하여 조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수년이 지난 후 1995년 해운항만청의 허가로 남구 감만동 해안 일대를 시추하던 중 폐터널이 발견되었고, 다음해 1996년 우암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하터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다시 베일에 가려졌다.²⁾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산의 일본군과 요새에 관한 연구는 이제 출발선에 들어섰다. 부산의 군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물, 자료집 성격의 단행본, 그리고 몇 편의 연구가 있다.³⁾ 그 중 신주백의 연구를 통해 1944년 '본토결전'과 관련하여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장자등포대, 가덕도에 위치한 일본군 진지의 실태와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김경남의 연구에서는 1930~1940년대 부산도시계획 속에서 부산의 군사적인 모습을

1)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시기와 주둔형태에 따라 조선주차군, 조선군, 제17방면군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군 전체의 전략변화와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일본군으로 통칭하겠다.

2) 『연합뉴스』, 1995.5.16. 「부산항 赤崎灣에 日帝 때 잠수함 기지 발견」 ; 1995.5.16. 「화제-부산항 지하 잠수함기지 존재하나?」 ; 1996.3.15. 「화제-日帝 부산항 지하기지 실존 논란 재연」 ; 부산문화유산해설사회, 『부문유』(적기만 赤崎灣* 보물동굴 이야기), 2003.4. ; 최해균, 『부산이야기 50마당』(5. 적기만赤崎灣의 해저보물, 그 진상은?), 2007.12. 참고

3) KBS 스페셜 〈1945년 한반도는 일제의 결전기지였다〉, 2009.8.16. (방영일)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인쇄출, 2001. ; 長谷川善, 『日本の要塞』(歴史群像特別編集: 日本の戦争遺跡), 學習研究社(東京), 2003. ; 신주백,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軍史』 제7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 김경남, 「1930·40년대 전시체제가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34호, 한일관계사학회, 2009.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이 부산을 군사적 거점지로 인식하기 시작한 1900년대부터 1945년까지 부산의 모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905년 이후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철도가 건설되고, 부관연락선이 출항하면서 부산역과 부산항은 일본의 침략교두보가 되었다. 일제시기 부산은 수송로 확보를 위해 부산역과 부산항 방어를 중시했고, 일본의 '제국국방방침'이라는 군사전략, 시기별 전황에 따라 부산에 요새를 구축했다.⁴⁾

이 중 일본군이 축성한 요새는 소만국경의 요새를 제외하면 모두 해안요새이고,⁵⁾ 부산은 해협을 방어하는 해협확보형으로 시모노세키(下關)요새, 이키(壹岐)요새, 쓰시마(對馬)요새 등과 같은 목적의 요새였다. 요새 구축의 변화는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워싱턴 군축회의,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기와 관련하고 있다.⁶⁾ 이 글에서는 일본군의 방어체계에 따른 부산의 시기별 요새구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일본은 1907년 '제국국방방침'을 제정하고, 1918년 1차 개정, 1923년 2차 개정, 1936년 3차 개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정리하겠다. 일본의 '제국국방방침'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영준, 「러일전쟁 직후 일본 해군의 국가구상과 군사전략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제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 남관우, 「중일전쟁과 일본육군의 군사전략」, 국방대학 석사학위논문, 2006. ; 장형익, 「근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제국국방방침」, 『국방부 간행물』 제70호, 2009. ; 박성만, 『일본 방위정책 연구(1868~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5) 연안에서 국방상 중요한 지역은 군항, 요항, 해군근거지, 진격 또는 침략당할 섬, 연안도시, 교통요지, 해협, 중요항만 등이다. 그 외에 중요한 지역으로는 조선소, 조병소, 창고, 토크, 저유소(貯油所), 저탄소(貯炭所), 저수소(貯水所), 수리소, 피난소, 집결소, 수륙연락소, 중요시설, 공장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94쪽.)

6) 宮本龍郎, 「近代要塞の建設組織と施設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 東海支部研究報告集』, 第40號2002, 837~840쪽 참고.

요새는 연안요새(해안요새), 도서요새, 국경요새, 육지요새, 도시요새 등으로 구분한다. 요새를 목적에 따라 다시 나누면 주요항을 방어하는 항방위형(港防衛型), 해협을 방어하는 해협확보형(海峽確保型), 양쪽의 특성을 가진 형태 등이 있다.

2. ‘조선해협(朝鮮海峽)’과 부산항 방어

19세기 말 조선은 근대 해군을 창설하고 해안방어 개편을 시도했으나 좌절되었고, 1907년 조선의 군대는 일본에 의해 해산되었다.⁷⁾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일본군이였다.⁸⁾ 일본군이 조선 남부지역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1904년 8월 3일 러일전쟁 직전 가덕도 남단에 위치한 외양포였다. 일본은 일찍부터 러시아를 주적으로 설정하고, 그 준비를 했다.⁹⁾ 1890년 3월 육군을 대표하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외교정략론』을 통해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았다. 시베리아 철도가 블라디보스톡까지 전면 개통되면 겨울에 결빙되는 항구대신, 남쪽으로 부동항을 찾을 것이고, 조선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의 동쪽, 즉 원산해역(영흥만)을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상정했다.¹⁰⁾

7) 19세기 조선 해안에 외국선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양과 가까운 인천을 중심으로 조선 해안의 방어를 위한 군사제도 재편이 시작되었다. 조선 지식인들이 근대해군 창설 필요성과 방안을 제기했다. ‘개항지에 水營을 설치하고 해군사병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인천항에 해군창설을 상소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초기 재정난으로 구 군영을 근대 해방영(海防營)으로 전환시키는 편제를 택했다. 연안에는 포대를 설치하여 이양선전근을 저지하도록 했다. 1893년 용산에 해군본부인 기연해방아문(畿沿海防衙門), 남양에 해군작전사령부인 해군통어영(海軍統禦營)을 설치하여 신구해군제를 복합운영했다. 1894년 12월 강화도에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을 신축하여 사관생도를 교육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으로 사관생들이 모두 일반군인 육군으로 전출되면서 학교는 폐지되었다. 다음해 1895년 7월 15일 각 도의 수군병마절도사영(수영)을 비롯한 수군 소속 만호·첨사진들이 차례로 해산되었다. 여기에는 근대 해군이라 할 수 있는 해방아문(해군본부)과 해군통어영(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도 함께 완전 폐지되었다. (장학근, 『朝鮮의 近代海軍 創設努力』, 『海洋帝國의 侵略과 近代朝鮮의 海洋政策』,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참고.)

8) 일본군이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80년 서울에 개설된 일본공사관의 수행원으로 오면서였다. 이후 1882년 공사관을 ‘수비’하기 위해 소규모의 군병력이 조선에 상주했지만, 전투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03년 12월 한국주차대사령부(韓國駐劄隊司令部)를 서울에 설치하면서부터였다. 1904년 한국주차군은 1910년 조선주차군으로, 1918년 조선군으로, 1945년 2월 제17방면군으로 재편되었다. (신주백, 「조선 주둔 일본군(조선군)의 성격과 역할」, 『동양학』 제39집, 2006.2. 참고.)

9) 박영준, 「러일전쟁 직후 일본 해군의 국가 구상과 군사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299~303쪽 참고)

10) 가토요코(加藤陽子)·박영준 옮김,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태학사, 2007, 92~93쪽.

러시아는 1878~1879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블라디보스톡에 해군기지를 건설했다.¹¹⁾ 1887년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고 1891년부터 착공하였다. 1897년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의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25년간 조차, 동청철도를 여순과 대련까지 부설하는 권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1875년 러시아는 일본과 사할린(*가라후토, 樺太)-치시마(千島)를 교환했고, 제해권과 관련한 일본의 소아(宗谷)해협, 츠가루(津輕)해협, 쓰시마(對馬)해협을 점거한 적이 있었다.¹²⁾ 러시아는 여순·대련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항로의 거점 기지를 확보하고자 했고,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러시아는 거문도·마산·진해·원산·부산 등지를 점유하며 부동항으로 삼기위한 시도를 했다. 그때마다 일본은 러시아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¹³⁾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해 조선 해안을 먼저 장악했다. 1876년 일본은 조선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면서 삼포개항을 요구했다.

-
- 11) 김재승, 「英國艦隊의 巨文島 武斷占據 實狀과 그 影響」, 『海洋帝國의 侵略과 近代朝鮮의 海洋政策』,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100쪽.
- 12) 가토요코(加藤陽子)·박영준 옮김,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태학사, 2007, 125~128쪽 참고.
- 13) 러시아는 1854년 거문도와 영흥만에서 조선관리와 현지주민을 만나 통상교섭을 제안했고, 1857년 다시 거문도를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전 중간 보급기지로 임시식 탄저장소 이용을 요청했다. 부산에서는 1884년 일본이 조차하려고 교섭 중이던 북병산을 러시아가 조차하겠다고 나섰고, 1885년에는 일본이 해군 저탄창고 건축을 이유로 조차한 바 있던 절영도에도 조차를 요구했다. 일본 저탄창고 서쪽 토지를 조차한 러시아는 군항을 정박하고 측량을 시작했다. 그러나 토지 확보가 쉽지 않자 다시 진해만을 주목하여 군항을 건설하고자 했다. 1899년 울산 장생포를 포경근거지로 조차했고, 1900년 마산포 남쪽 울구미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다. 마산은 1899년 5월 1일 개항장이 된 후, 마산과 진해만 일대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각축장이 되었다. 1900년 10월말까지 1년 6개월간 마산포에는 22회 23척의 러시아 함정, 9회 11척의 일본 함정이 출입했다. 러일의 각축으로 마산포 일대의 토지 매입 경쟁이 살벌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앞서 토지들을 모두 매입하는 전략을 폈다.(김재승, 「英國艦隊의 巨文島 武斷占據 實狀과 그 影響」, 『海洋帝國의 侵略과 近代朝鮮의 海洋政策』,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 김용욱, 「근대 개항기의 부산행정-1876~1910년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11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4. ;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I, 일월서각, 1989. 참고)

1876년 부산,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이 일본에 개항되었다.¹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부산, 원산, 인천은 중요 군사지역의 역할을 했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러했다. 진해만요새사령부가 설치된 곳은 조선시대 제포라 불리던 지역으로 부산·염포와 함께 일본에 개항했던 3포 중 한곳이다. 일본로서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인지된 공간이었다.

러일전쟁 직전 러시아 함대는 여순에 40척, 인천에 2척, 블라디보스톡에 21척이 정박해있었다. 1904년 1월 어전회의에서 야마모토(山本權兵衛) 해군장관은 “러시아 해군 중 동양에 파견된 세력이 일본 해군력과 비슷하므로, 일본해군이 먼저 동양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격멸하고, 이후 러시아 발틱함대가 올 때는 이를 격파하는 분격전략(分擊戰略)”을 주장했다. 야마모토의 주장은 수용되었고, 해군수뇌부는 3단계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일본해군은 기본적으로 ‘조선해협(朝鮮海峽)’을 통제해야 했다.¹⁵⁾ 이를 위해 먼저 러시아 극동함대의 여순함대와 블라디보스톡 전대를 분리시키고, 다음으로 러시아의 증원함대가 블라디보스톡 전대와 합류하지 못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만주에 이르는 병참선 확보를 위해서 조선해협과 동해의 제해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일본 해군수뇌부는 제3함대로 진해만을 점령하는 계획을 수립했다.¹⁶⁾

이러한 배경으로 1904년 일본군은 부산 가덕도와 원산에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904년 8월 3일 러일전쟁 직전 가덕도 남단에 위치한 외양포에 일본군 제3임시축성단 소속의 공병들이 진지 구축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포대진지와 막사 등을 완공했다. 그 후 1904년 12월 12일자로 진해만 요새 포병대대 제2중대가 주둔하고, 12월 20일 중포병대대가 이동해왔다. 1905년 4월 21일에는 ‘진해만요새사령부’가 편성되어 5월 7일 외양포로

14) 蔡中默, 「제3장 개국외교 : 조·일 수호조약」,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9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3, 106쪽.

15) 이 글에서는 현재 지칭하는 대한해협과 쓰시마(對馬)해협을 통칭하여 당시의 용어인 ‘조선해협(朝鮮海峽)’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16) 최영호, 『근대 日本 海軍力 建設과 發展에 影響을 미친 요소와 海軍 戰略에 관한 研究』,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5쪽, 134~135쪽.

옮겨왔다.¹⁷⁾ 1909년 8월 마산의 신축 병사로 이전하면서 마산중포병대대로 개칭되었다. 한편 진해만에는 거제도 송진에 해군 가근거지방비대(假根據地防備隊)를 설치하였다.¹⁸⁾ 1907년 9월 30일 진해방비대로 개칭되고, 사세보(佐世保)진수부에 소속되었다. 진해만의 항만과 부근 일대의 해면·해안 방비 및 경호를 임무로 했다.¹⁹⁾

외양포 포대 구축을 완료한 제3임시축성단은 1905년 2월 영흥만에 투입되었다. 동서 10해리, 남북 20해리인 영흥만은 전함과 상선 수십 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곳이었다.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모두가 전략적 요충지로 일찍부터 확보하려는 경쟁이 벌어졌던 곳 중 하나였다.²⁰⁾ 원산은 청일전쟁 당시 보병과 야전포병을 상륙시켰다. 러일전쟁 때는 해군 임시 방비대가 설치되고, 1905년 5월 영흥만요새사령부와 영흥만요새포병대대 및 요새병원이 편성되었다. 1913년 10월 원산부의 신축청사로 이전하였다.²¹⁾

러일전쟁 준비는 쓰시마에서도 진행되었다. 쓰시마는 섬의 남단과 이키(壹岐)의 북단 사이가 48km, 섬의 북단과 부산 영도는 48km의 거리이다. 1887년부터 1906년까지 13곳 이상의 포대와 보루가 구축되었다.²²⁾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고, 남만주 일대를 확보

17) 이지영·서치상,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 군막사 및 포대진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9호 3호(통권 70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6. 참고.

18) 해협의 방위는 본래 육군요새의 담당이었지만, 중요해협이나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항만의 방위는 해군도 함께 했다. 해군에서는 그 때문에 해군방비대(海軍防備隊)라고 하는 부대가 존재했다. 방비대는 연합함대가 화려했던 것에 비해서 이방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존재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長谷川普, 『日本の要塞』, 學習研究社(東京), 2003, 167쪽).

19)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I, 일월서각, 1989, 137쪽.

20) 수호조약부록 및 통상장정 협정 후, 다음해 조선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거쳐 서해 연해 측량을 하면서 북상, 10월 16일 인천 도착, 27일부터 조선과 개항문제 논의. 1878년 4월 6일 일본군함 天城함장 해군소좌 마츠무라야스다네(松村安種)가 전라·충청·함경 등 각도 연안을 측정한 결과 원산항을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하고, 우메쓰(海津) 중위에게 원산진의 부두설계도를 그리도록 했다. (蔡中默, 『제3장 개국외교 : 조·일 수호조약』, 『한국정치의교사논총』 제9집, 한국정치의교사학회, 1993, 106쪽.)

21)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I, 일월서각, 1989, 138~139쪽.

22) 쓰시마 요새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1907년 진해군항 경계



출처 : 대한제국 『관보』 1907년 12월 12일자(號外). 「告示」

하였으며,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영유하게 되었다. 만주에서 권익을 유지하고,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미국과 경제 통상활동을 지속하는 외교 전략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수세적인 일본 방어전략을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한다는 '제국국방방침'을 1907년 4월 제정하였다.²³⁾

요새명	착공일 - 준공일	요새명	착공일 - 준공일
濶江포대	1887년 4월 - 1988년 8월	城山付屬보루	1900년 4월 - 1901년 11월
大平포대	1887년 4월 - 1988년 8월	折瀨ヶ鼻포대	1900년 12월 - 1902년 4월
芋崎포대	1887년 4월 - 1988년 10월	根緒보루	1901년 8월 - 1903년 3월
大石浦포대	1887년 9월 - 1988년 10월	上見坂보루	1901년 8월 - 1902년 11월
四十八谷포대	1898년 8월 - 1900년 3월	郷山포대	1904년 8월 - 1905년 10월
大平高포대	1898년 10월 - 1901년 10월	樞岳포대	1904년 9월 - 1906년 2월
姫神山포대	1900년 2월 - 1901년 11월	多功崎포대	1905년 2월 - 1906년 5월
城山포대	1900년 4월 - 1901년 11월		

(출처 :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264~267쪽.)

23) 박성만, 『일본 방위정책 연구(1868~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38~41쪽 참고.

일본은 남하하려는 러시아 세력을 막고, 남만주 일대를 관할하기 위해 러일전쟁 당시 구축했던 진해와 원산의 군사기지를 확대하고자 했다. 일본의 요구에 따라 1906년 8월 22일 조선은 진해만과 영흥만을 “국방상 필요에 따라 해당구역을 군항으로” 결정하고, ‘차여(借與)’하는 형식을 취했다.²⁴⁾ 1907년 8월 21일 결정된 진해군항은 <그림 1>과 같다.²⁵⁾ 1906년 진해, 거제도, 통영, 가덕도를 포함한 진해군항에 낙동강 하구지역이 포함된 것이었다. 일본은 1911년 1월 16일 진해군항을 일본군제에 편입했다. 진해군항(칙령 제452호, 칙령 제453호)과 원산군항(칙령 제454, 칙령 제455호) 설치에 관한 칙령에 따르면 ‘4해군구(四海軍區)’를 ‘5해군구(五海軍區)’로 개정하여, 5해군구에 쓰시마와 조선의 해안해면을 포함했다. 5해군구의 군항은 진해로 결정했지만 진수부를 설치하지 않고, 사세보진수부에서 관할하도록 했다.²⁶⁾ 진해-쓰시마-사세보 군항을 한데 묶은 것이다. 진해만이 군항으로 결정되면서 진해면 신축 청사에는 요새사령부 및 예하중포병대대, 해군 진해방비대가 주둔했다. 이후 진해만은 1916년 진해경부의 전신인 진해요항부가 설치되었다.²⁷⁾

24) 『고종시대사 6집』, 1905년 9월 2일자 : 1905년 12월 5일자 : 1905년 12월 19일자 : 1906년 8월 21일자 : 1906년 8월 22일자 : 1906년 9월 30일자, 1906년 10월 4일자 : 1907년 3월 19일자 : 1907년 8월 21일자. 1905년 마산주재일본영사 三浦彌五郎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진해만을 포용하는 거제, 진남, 고성(통영), 진해, 칠원, 웅천 등 6郡의 경찰, 사법, 수세, 교통 등 주요 행정권을 일본의 손에 넣어 요새화할 것을 상신했다. 일본 해군은 진해만요새지로 웅천군의 대부분, 칠원 전부, 진해군 일부와 부근 섬을 선정하고 선정지역의 토지 등을 조사, 수매하기 위하여 일본해군 중좌 岡野富士松이 마산일본영사관을 방문했다. 1906년 8월 21일 의정부참정대신 박계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등의 주청에 따라 진해만과 영흥만을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해당구역을 군항으로” 예정했고, 內部는 다음날 8월 22일 진해만과 영흥만을 군항으로 결정했다. 이 사실을 관찰사에 訓飭하고, 주변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9월 30일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의 요구로 진해만과 영흥만을 일본에 ‘차여(借與)’하는 형식을 취했다. 10월 4일 한성부윤을 진해만군항지 조사위원장에 임명하여 진해만군항지 측량 및 조사를 시작했다. 1907년 8월 21일에 경상남도 진해만군항경계를 고시했다.

25) 대한제국 『관보』 1907년 12월 12일자 (號外), 「告示」

26) 內閣, 「明治四十三年・勅令第四百五十三号・鎮海軍港境域ノ件」, 『御署名原本』(勅令 453호), 1910.12.26. (아시아역사자료센터, A03020876600) : 『관보』 제112호, 1911년 1월 16일자

27) 임종국, 『日本軍の朝鮮侵略史』 I, 일월서각, 1989, 137쪽.

육군에서도 “대륙으로 확장하는 제국의 국토를 보호하고 이권을 확보하며, 대륙으로 향하는 작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 남해에 견고한 육해군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진해만의 방비를 강화하고, 부산을 육군의 상륙지로 지정했다. 1909년 12월 21일 참모본부 제1부에서 작성한 <요새정리 방침안>에 따르면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해만과 부산, 쓰시마와 사세보를 잇는 해안의 방비를 확실히 하고, 만주와 ‘北清’으로 향하기 위해 여순과 대련 방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조선해협과 츠가루(津輕)해협을 방비하여 내해(內海), 즉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겠다는 결정이었다.²⁸⁾

1910년 육군축성부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요새건설은 순조롭지 못했다. 설치되어 있던 진해만요새의 시설물, 외양포포대, 저도포대의 정리를 시작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이 늦어진 탓에 공사가 연기되고 있었다. 이것은 진해만요새뿐만 아니라 일본·조선·대만·남태평양 등지의 모든 요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새건설은 예산 외에도 군용지확보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마찰도 큰 문제였다.²⁹⁾ 러일전쟁 당시 구축한 요새와 포루 일부를 폐지하고, 포대의 병기를 잘 수선하여 보존하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했고, 요새를 새로이 구축하거나 정리하는 것은 여러차례 나누어 진행했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요새지대에서 금지·제한하는 사항, 이를 위반 시 처벌사항을 규정한 <요새지대법>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어로, 정박, 토사채취, 창고신설, 염전, 과수원, 경작지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이다.³¹⁾

28) 陸軍省, 「要塞整理方針按に關する件」, 『軍事機密大日記』, 1909.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2030380500)

29) 陸軍省, 「築城部本部 要塞工兵將校會同記事抜すいの件」, 『密大日記』, 1910.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985800)

30) 陸軍省, 「要塞整理の件」, 『軍事機密大日記』, 191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2030014400) ; 「各要塞堡壘砲台の一部廢止の件」, 『軍事機密大日記』, 191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2030024100).

31) 조선총독부편찬, 「要塞地帶法」, 『朝鮮法令輯覽』 上卷, 1940. : 『관보』 제351호, 1913년 9월 30일자, 「勅令」. 일본에서 1899년 7월 법률 제105호로 규정 된 후, 조선에는 1913년 9월 23일 칙령 제284호로 공포·시행하였다.

3. ‘조선해협요새계(朝鮮海峽要塞系)’ 지정과 부산의 요새 건설

일본의 ‘제국국방방침’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수정이 가해졌다. 일본은 ‘승전국’으로 독일이 중국 산둥성에서 가지고 있던 권익과 팔라우와 마셜 제도를 비롯한 적도 이북의 남양 군도를 위임 통치령으로 삼게 되었다. 남북으로 일본의 군사적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중국·미국과의 충돌은 시간문제였다. 1907년 러시아를 제1적으로 하고 미국·독일·프랑스를 두었던 반면, 1918년 6월 결정한 ‘1차 개정 제국국방방침’은 러시아·미국·중국이 나란히 가상적으로 상정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가 연합국의 경제봉쇄라고 분석하고, 총력전이라는 개념을 배웠다. 해군은 해군무역과 전시공업을 중시했고, 전시에 ‘동해, 지나해, 남양, 인도양’의 해상권을 해군이 장악하고 있으면 전시물자의 반은 수송충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육군은 중국의 자원으로 경제봉쇄에 대비하고 총력전을 편다면 20~30년 전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중국의 자원으로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³²⁾

1차 개정 제국국방방침이 결정된 1918년 조선에 주둔했던 조선주차군은 조선군으로 명명하고 상주군으로 개편하였다. 19사단과 20사단은 각각 함경도와 그 이외의 한반도를 수비관구로 하였다. 러시아와 중국방어가 우선한 편제였다. 1941년 12월 아시아태평양전쟁 전까지 편제와 작전구역은 바뀌지 않았다.³³⁾

제국국방방침 수정에 따라 1919년 4월 14일 참모총장이 육군대신에게 <요새정리의 건>을 제출했다. 일본과 대륙 간의 해로확보와 군사적 필요로 해협을 제압하기 위해서 “새로이 요새 설치, 재래 요새의 방어선 추진,

32) 가토요코(加藤陽子)·박영준 옮김,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태학사, 2007, 190~220쪽 참고.

33) 신주백, 「조선 주둔 일본군(‘조선군’)의 성격과 역할」, 『동양학』 제39집, 2006.2. 참고.

신식화포 채용, 축성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조선해협은 이키(壹岐)요새를 신설하여 진해만-쓰시마-이키-사세보를 잇는 조선해협요새계를 구축하고, 소아(宗谷)해협, 츠가루(津輕)해협에 새로이 요새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치치(父)요새를 구축하여 남태평양 방면 해군 거점마련하고,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요새를 추가하여 澎湖島요새와 더불어 해군의 근거지로 삼고자했다.³⁴⁾ 동해를³⁵⁾ ‘내해(內海)’로 설정하여 해상봉쇄를 도모하고,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繩)-대만을 잇는 요새를 구축하여 ‘외해(外海)’를 방어하고자 했다. 또한 일본과 대륙의 연결선을 확보하면서 “국방 제일선인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육해군이 함께 공세작전을 강구하고 있었다.³⁶⁾

34) 陸軍省, 「要塞整理の件」, 『軍事機密大日記』, 1919.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2030098200) 조선해협요새계의 임무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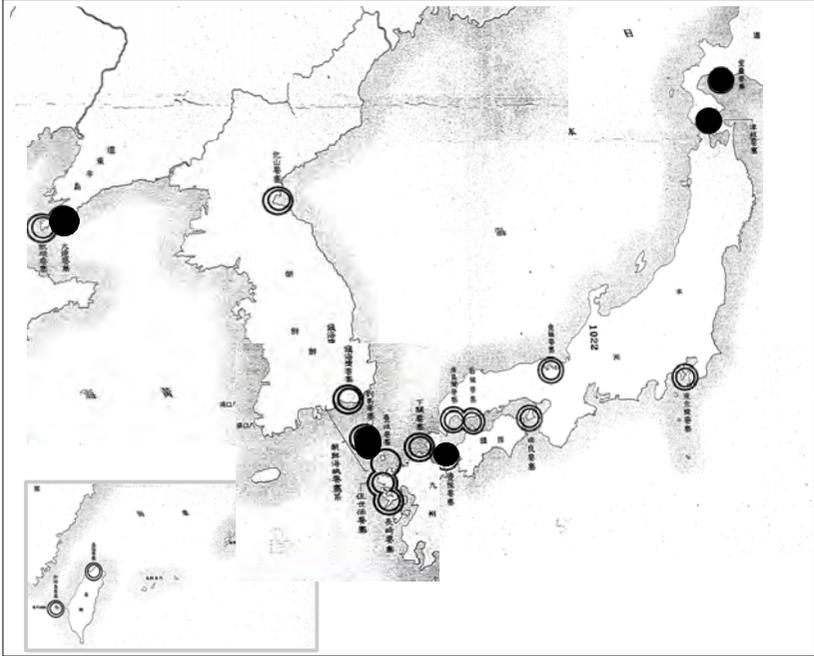
요새명	요새임무	방어 목적
壹岐요새 (신설)	1. 對馬·진해만요새와 상호하여 일본·조선간 교통 엄호 2. 壹岐해협의 적합 항로 차단, 對馬요새 해협의 적합 항로 방해 3. 적(해군)의 공격으로부터 伊萬里灣 엄호	
對馬요새	1. 壹岐·진해만요새와 상호하여 일본·조선간 교통 엄호 2. 對馬해협 동서쪽의 적합 항로 차단. 3. 소형정의 공격으로부터 竹敷요항 엄호	淺海灣·三浦灣 엄호, 함선의 피난소 제공, 항로엄호.
진해만 요새	1. 壹岐·對馬요새와 상호하여 일본·조선간 교통 엄호 2. 對馬해협 서쪽의 적합 항로 차단. 3. 적(해군)의 공격으로부터 진해군항과 부산항 엄호	진해만·마산포 엄호, 남해안의 육해군 근거지 확보.

조선에 구축된 요새 2곳 중 하나인 원산요새는 조선동해안에 함선 피난소 마련을 목적으로 적 소함정의 공격에 대해 만내에서 함선을 엄호, 적의 공격에 대해 원산거류지 및 만내 일대의 해면을 엄호하고, 육해군의 본 만의 이용을 용이하게 함을 임무로 했다.

35) 1919년 「要塞整理の件」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서해를 ‘황해’로 표기했다.

36)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60쪽.

〈그림 2〉 1919년 현재 일본군 요새(신설 예정 포함)



출처 : 陸軍省, 「要塞整理の件」, 『軍事機密大日記』, 1919.(※ 검은 점은 신설 요새)

재가를 받은 <요새재정리안>은 크게 4가지를 계획하고 있었다. 첫째는 함포의 위력증대에 대한 비치된 포의 위력을 강화하고, 방어선을 외해(外海)로 추진한다. 둘째는 홋카이도(北海道)와 혼슈(本州) 사이의 교통로를 일본과 대륙 간의 범위로 강화한다. 셋째는 육지정면의 설비를 모두 폐지한다. 넷째는 대공(對空)방어를 위해 시설을 위장하고, 분산한다. 다시정리하면 방어선을 외해로 추진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는 비치된 포를 강화하여 사정거리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는 오키나와(沖繩)의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아미미(庵美)제도에 새로이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北海道와 本州간 교통로 강화라는 것은 津輕요새의 건설을 이룬다.³⁷⁾ 이는 3년 뒤 제국국방

37) 永留久恵, 『對馬國志-近代・現代編 戦争と平和と國際交流』, (株)昭和堂(長崎), 2010.

방침의 재개정으로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요새재정리안이 결정될 시점에 육군은 해군의 전략에 밀접한 협력을 했다. 小笠原제도, 庵美제도는 해군의 전진기지로, 津輕요새는 미국에서 진공하는 미해군의 작전(支作戰)을 위한 것이었다.

1917년 12월 <요새정리의 건>을 심사한 요새심사위원회는 대륙간 교통에서 가장 적합한 교통선으로 섬이 많은 壹岐, 對馬 등을 통해서 진해만에 이르는 선이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壹岐요새를 신설하고 對馬島와 진해만요새의 방비를 확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목적이 같은 세 요새를 통일된 지위 하에 두어 하나의 요새계로 편성할 것을 결정했다.³⁸⁾ 각 항구만을 방어하던 체계에서 요새를 구축함으로써 해협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는 것이었다.

1922년 7월 27일 <승甲 제2호> 전시편제가 제정되었다. '조선해협요새계 사령부'가 신설되고, 전시편제에서 조선해협의 모든 요새 지휘는 제12사단장이 맡도록 했다. 제12사단에 편제된 요새는 다음과 같다.

下關요새사령부, 豊予요새사령부, 長崎요새사령부(長崎중포병연대 배치)
佐世保요새사령부(佐世保重포병대대 배치), 壹岐요새사령부,
對馬요새사령부 (鷄知중포병대대 배치)³⁹⁾

그러나 1921년 시작된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일본 해군의 군축이 결정되면서 군사전략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⁴⁰⁾ 일본은

100~101쪽.

38)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311~310쪽.

39) 위키백과사전

40) 워싱턴군축회의는 1921년 11월 12일부터 1922년 2월 6일까지 워싱턴에서 미국·영국·일본 등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력함(전함, 항공모함)에 대한 군축이 합의되어 미국·영국·일본의 보유 비율이 5:5:3, 즉 일본의 주력함 보유 비율이 미국과 영국의 60%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보조함(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각국은 보조함 건조 경쟁에 뛰어들어 재정적인 위기상황이 재현되었다.(이정용, 「런던군축회의와 일본 해군」, 『韓日軍事文化研究』 제9집, 2010, 참고.)

군비축소 결정에 따라 해군병력을 제한하고, 태평양방비제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일부 전함과 순양전함을 폐선처리하고, 1920년부터 건설을 시작했던 남태평양지역의 해군근거지인 沖繩의 庵美大島·남태평양방면의 父島·타이완(臺灣)의 평후다오(澎湖島)·九州의 호요(豊予) 지역의 요새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군함에 탑재되어 있거나 탑재 예정이었던 대구경(大口徑)포탑의 대부분을 육상용 포탑포대로 개조하여 요새에 전용하도록 했다. 폐지된 요새에 파견되었던 직원과 물자는 1922년 이즈하라(嚴原)·고우노우치(郷ノ浦)·하코다테(函館)·부산으로 보내졌다. 1924년 對馬·壹岐·津輕·진해만 각 지부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⁴¹⁾ 외해 요새가 방어선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자, 내해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갔다.

요새공사는 1919년 결정된 <요새정리의 건>을 재심사하여 1922년 2월 6일 결정한 <요새재정리심의방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장래 요새의 방어는 해상과 육상에 의한 적의 공격 뿐아니라 상공의 공격까지 고려해서” 기존의 요새정리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해군병력 제한으로 해상방어가 약화되었으므로 일본과 대륙간, 本州와 北海道간 교통로 확보를 위해 조선해협과 津輕해협의 방비를 특히 엄격히 하도록 했다. 둘째는 상공 방어를 위해 고사포, 고사기관총, 조명탄을 배치하도록 했다. 셋째는 잠수함의 공격에 대비해 중소구경 속사포 케논포대를 증설하도록 했다.⁴²⁾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기본 방침은 1923년 2월 2차 개정된 ‘제국국방방침’이었다. 제1적으로 미국을 설정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나란히 적국에 포함되었다. 1915년 일본이 중국에 전달한 <대중국 21개조> 요구에 대해 미국이 관여를 시작하면서 미국을 적국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922년 워싱턴군축회의 결과 일본 해군력이 미군 해군력의 70%로 감소되면서 표출되었다.⁴³⁾

41) 長谷川普, 『日本の要塞』, 學習研究社(東京), 2003, 68~69쪽.

42) 陸軍省, 『要塞整理再審議に關する件』, 『密大日記』, 19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661000)

43) 박성만, 『일본 방위정책 연구(1868~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일본군은 상공방어와 잠수함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도 항공전력의 중요성과 잠수함의 위력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먼저 방공과 관련해서 육군과 해군은 1921년 9월 육군참모총장과 해군군령부장이 모여 <육해군항공임무분담협정>을 체결했다. 본토를 비롯한 제국 영역의 주요 지점에 대한 방공은 주로 육군이, 해군 근거지대를 비롯한 최전선의 해군 기지와 해안에 침입하는 함선 및 항공기에 대한 방공은 해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선에 대해 육군과 해군의 구체적인 방어는 1923년 6월 18일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군령부장이 체결한 <육해군 방공협정의 건 통첩>에 따라 정해졌다. 진해·영흥은 해군이, 진해만·마산항·부산항·원산·신의주·평양·경성은 육군이 대공방어를 담당하도록 했다. 진해의 경우 진해요항부 및 인근 지역은 해군이, 가덕도를 비롯한 진해만 일대는 육군이 방위했다.⁴⁴⁾ 해군의 역할 대신 포를 강화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유일 방공부대는 고사포부대였다.

조선총독부는 1924년 7월 『관보』를 통해 <그림 3>와 같이 '진해만요새지'을 공포했다. 1911년 결정된 '진해군항' 경계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이 포함되었다. 이전 진해군항 경계는 '1구역'이고, 새로이 영도와 赤崎灣(현 용당동, 용호동, 감만동)을 2구역으로 하였다. 이전 해안방어가 해군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면, 이후는 요새를 구축하고 육군이 가덕도를 비롯한 진해만과 부산항을 직접 방어하는 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여기에는 워싱턴 군축회의 결과 해군의 병력이 제한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

48~51쪽 참고.

44) 防衛廳防衛研究所 戰史室, 『戰史叢書 19 本土防共作戰』, 朝雲新聞社, 1968. 5쪽 ; 陸軍省, 『陸海軍防空協定の件』, 『大正12年「軍事機密大日記」 3/6』, 192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2030152900)(조건, 「전시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防共 조직과 활동」, 『崇實史學』, 제27집, 2011. 86~87쪽 재인용.)

시멘트로 전체 진지의 건물을 견고하게 세운 다음 다시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위장했다고 한다. 방공을 염두에 두고 요새들을 엄폐하라는 지침이 있었다.⁴⁷⁾

부산을 마주하는 쓰시마에도 같은 시기 쓰시마요새사령부가 설립되고 요새를 구축해갔다. 1924년 시작된 도요(豊)포대를 비롯하여 9개의 포대가 만들어졌다. 특히 豊포대는 부산 용호동 장자등포대와 같은 사정거리 30km의 40cm(16인치) 케논포를 탑재한 포대이다. 壹岐에도 1924년 아즈치오시마(的山大島)포대, 1928년 쿠로사키(黑崎)포대 구축을 시작했다.⁴⁸⁾ 워싱턴 군축회의 결과 폐선된 전함 중 土佐전함 포탑은 장자등포대에, 赤城전함 포탑은 豊포대와 的山大島포대에, 鹿島전함 포탑은 黑崎포대에 배치했다.⁴⁹⁾ 부산-對馬島-壹岐에는 각각 사정거리 30km의 포를 탑재한 요새가 만들어지면서 조선해협의 적 함선 출몰에 대한 방어막이 구축되었다.

4. 물자·병력 수송과 부산의 요새 강화

1931년 관동군은 노교구사건을 일으키고, 1932년 만주국을 세웠다. 이를 비판하는 국제여론을 외면하며 다음해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부산항을 통해 만주로 보내는 군인과 군수물자 운반이 급격히 증가했다.⁵⁰⁾ 다음은 1931~1932년 <육군운송부 부산출장소 일지>에 적힌 군인과 군수품 운반내역이다.

리시 각각 포탑 40cm 2기 배치를 계획했다.(陸軍省, 「要塞再整理第1期備砲著手順序に關する件」, 『密大日記』, 1925.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702500))

47) 전중회(1931년생)의 증언(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2001, 204쪽.)

48)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264~267쪽 참고.

49) 長谷川善, 『日本の要塞』, 學習研究社(東京), 2003, 111, 177~179쪽, 참고.

50) 朝鮮軍司令部, 『朝鮮軍歴史』 제5호, 1936.4. 211~212쪽.

- 1931.10.1. 陸滿密 제22호에 의해 관부연락선으로 운송되는 병기탄약의
揚陸 및 철도운송 실시
- 1931.12.24. 陸滿普 제465호에 의해 11월 1일 이후 詰切 및 居殘 식료지
급부대로 지정
- 1931.11.18. 運131호 명령에 따라 제2차 만주과견혼성 제4여단의 선박운
송 揚陸업무 실시
- 1931.11.21. 運157호에 따라 만주과견비행중대 및 제2사단 보충원의 선
박운송 揚陸업무 실시
- 1931.11.27. 運1176호에 따라 관동군야전자동차대 및 關東電信隊의 상륙
보조
- 1931.12.15. 運1273호에 따라 관동군위생대 선박운송 揚陸업무 실시
- 1931.12.24. 運262호에 따라 만주임시과견부대 선박운송 揚陸업무 실시
- 1932.5.11. 運673호에 따라 만주과견 제14사단 보충馬의 揚陸 및 일부
艤裝해제 실시
- 1932.10.1. 運1431호에 따라 만주과견혼성 제14여단 선박운송 揚陸업무
실시
- 1932.12.17.~18. 運1857호 명령에 따라 만주과견 제6사단의 선박운송 揚
陸업무 실시

일본군은 군사재정비에 들어갔다. 1933년 3월 13일 결정된 <요새건설 재수정계획 요령>에 따라 요새정비가 시작되었다.⁵¹⁾ 잠수함과 항공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소련의 잠수함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다. 잠수함 공격에 대한 전술의 변화, 기술 개발을 위해 전략을 강구해 나갔다. 특히 수중침몰기 개발을 시작했다. 방공에 대해서는 <제국영토방공에 관한 육해군협정>을 체결하여 요새를 중심으로 육군과 해군이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해방(海防)에서 방공(防空)으로”

51) 陸軍省, 「要塞再整理 (東京灣要塞施設復旧) 修正計畫要領に伴う砲台處理の件」, 『軍事機密大日記』, 1936.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5452200)

라는 조선해협요새계병비표에서처럼, 방공을 위한 병기로 고사포, 고사용관측구, 조명등, 공중청음기, 정보기, 고사기관포, 3년식 기관총 등이 이용되고 있었다. 下關요새에는 중소구경화포 배치고, 壹岐와 對馬요새는 방공병기 정비와 구식포대 폐지, 진해만요새에는 대구경포 배치가 결정되었다. 진해만요새의 저도포대는 장승포 포대가 완료되면 폐지하고, 외양포포대는 예비용으로 남겨놓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요새건설 재수정계획 요령〉에 따라 1933년 5월 16일 참모본부는 〈조선해협요새건설요령서〉를 책정했다. 조선해협-宗谷요새-津經요새가 함께 적함선을 막고, 항해함선을 위해 엄호단을 형성하도록 했다. 상공의 공격에 대비해서도 제철소 및 그 부근의 공업지대 엄호가 중요하게 되자, 북규슈(九州)의 공업지대 방공을 위해 下關요새를 추가했다. 다음해인 1934년 2월부터 예비화포 배치와 포대 추가건설이 시작되었다. 대상은 壹岐, 對馬島, 진해만, 마이즈루(舞鶴)요새였다.⁵²⁾

그러나 소련 해군력과 항공병력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에 대처해야했다. 1936년 6월 8일 ‘제3차 개정 제국국방방침’을 결정하고, 가상적 공동 1위로 미국과 러시아를 상정하고, 중국과 영국을 추가했다. “일본의 국방에 필요한 병력은 동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제압”할 것을 내용으로 했다. 자원빈약국인 일본이 군사대국과 전쟁시 초기전력을 강화한 선제공격과 속전속결을 방침으로 내걸면서 육군은 러시아를, 해군은 미국을 목표로 병력을 증강해갔다. 1937년 일본 정부는 육군에 7억 3천만엔, 해군에 6억 8천만엔을 배정하여 전체 예산중 47%를 군비확장에 투입했다.⁵³⁾

제국국방방침 3차 개정 직후 1936년 9월 〈요새건설재수정계획요령〉을 발표했다. 다음해 1937년 8월 세부계획이 나왔다. 방위의 중점은 ‘海防에서 防空, 防滯로 하고, 또 要塞에서 要地로 변환’했다.⁵⁴⁾ 요새를 중심으로 주요

52)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313~315쪽.

53) 박성만, 『일본 방위정책 연구(1868~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82~86쪽 참고.

54)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지역의 거점방어 형태로 재편을 예상할 수 있다. 조선해협요새계의 해면 방어를 위해 소형함정 시설을 구축하고, 미완성 상태인 대구경 화포포대의 건설을 중지했다. 대신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중구경 화포포대 설립을 추진했다. 일본과 조선 간 항로확보 강화를 강조했다. 下關요새와 진해만요새에는 부근의 주요시설 엄호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부산 영도, 기장포대 구축. (***)

이는 육해군이 함께 조선과 일본 근해를 방어했던 체계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해군 병력의 공백을 대비한 것이었다. 선박의 직접 엄호를 담당했던 해군이 미국을 주적으로 병력을 증가시키면서 남태평양지역으로 이동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해군의 호위가 뒷받침 되지 못한 조선해협요새계는 각 요새의 시설만으로 조선해협을 방어해야 했다. 특히 상공의 공격에 대해서 조선과 일본 간 해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요항과 항구 일대의 중요시설, 자원, 항만시설을 지켜야 했다.⁵⁵⁾

한편으로 작전상 중요한 지역인 조선 나진, 사할린과 北海道 사이 宗谷, 치시마(千島) 바라무시루(幌筵), 臺灣 까오슝(高雄)에 요새 건설이 예정되었다.⁵⁶⁾ 조선해협요새계와 함께 '내해(內海)'로 설정된 北海道-사할린-千島 지역은 1940년 구축을 시작해서 1941년 완료했다. 한편 일본-沖繩-臺灣을 잇는 요새구축을 완료하여 '외해(外海)'를 방어하는 또 하나의 방어선을 만들었다.

1999, 91쪽.

55)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315쪽.

56)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54~55쪽, 305~308쪽.

〈그림 4〉 1945년 일본군 요새 분포도



출전 : 『日本の要塞』, 52쪽.

일본은 방어와 공격을 위한 요새구축을 1941년 완료하는 한편, 1937년 중일전쟁 직후부터 총동원체제 구축을 실행했다. 총동원체제에 관한 준비는 1915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15년 국가총동원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육군은 육군임시군사조사위원회, 해군은 해군임시해군군사조사회를 설치하고 연구를 시작하여 다수의 보고서와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모두 국가총동원체제

구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1918년 4월 데라우치(寺內) 내각에서 군수공업동원법이 육군 주도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총동원법 관련법의 효시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에 시행되었다. 7월 28일 총동원계획의 일부 실시가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11월 국가총동원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인적, 물적자원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한 후, 모든 범위의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행정기구 정비,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등 총동원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시점은 1940년이였다.⁵⁷⁾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진해만요새에 '방공전비(防空戰備)'를 하달했다.⁵⁸⁾ 육군성과 해군성은 조선총독부 『관보』 10월 30일자에 '고시 제8호'로 진해만요새 제1지구와 제2지구를 합친 요새지대를 발표했다.⁵⁹⁾ <그림 5>와 같이 동쪽으로는 현재 기장군까지 남서로는 통영해안까지를 포함했고, 그 결과 <그림 6>과 같이 부산요새가 구축되었다.

<그림 5> 1937년 진해만요새 지역



<그림 6> 포대 분포도



출처 :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263쪽.(좌)
『관보』 제3242호, 1937년 11월 4일자,
「告示」(우)

57) 안자코유카(庵澄由香),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참고

58)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34쪽.

59) 『관보』 제3242호, 1937년 11월 4일자, 「告示」

〈표 1〉 진해만요새 구축현황

포 대 명	구축시기	포 종 류	비 고
張子嶼砲台	1포대 : 1924년 10월-1930년 10월	40加	
	2포대 : 1934년 5월-1935년 12월*	45式 15加 4門	★ 1938년 1월 개축
	3포대 : 1939년 1월-8월**	11式 7加 4門	
	포대강화 작업 : 1945년 7월		
外洋浦砲台 (가덕도)	1904년 8월-12월		
機張砲台	1937년 7월-1939년 3월	96式 15加 4門	
絶影島砲台	1937년 7월-1939년 2월	11式 7加 4門	
沒雲臺포대	1923년 계획(?????)		
猪島砲台 (거제도)	1904년 8월-12월 1905년 2월 보조건설물 준공		
只心島砲台 (거제도)	1936년 7월 - 1938년 1월		
長承浦砲台 (거제도)	1936년 준공		

출처 :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264~267쪽 참고

* 陸軍省, 「鎮海灣要塞張子嶼第 2 砲台新築工事實施の件」, 『陸軍省大日記』, 1936.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5451600)

**陸軍省, 「鎮海灣要塞張子嶼第三砲台備砲工事實施の件」, 『軍事機密大日記』, 1939.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7726000) ;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57쪽.

〈그림 7〉 부산항을 방어하는 장자등포대와 영도포대 위치도



출처 :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264쪽

요새는 방공(防空)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산과 부산항, 정면의 조선해협을 방어하도록 했는데, 장자등포대와 절영도포대가 주력이라면 기장포대와 장승포·지심도 포대는 보조라 할 수 있다. 장자등포대와 영도포대는 〈그림 7〉과 같이 위치하며 부산항을 가장 가까이 방어함과 동시에 조선해협의 선박운항을 엄호했다.⁶⁰⁾

방어체계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1934년 이래 조선총독부는 북부의 나진과 남부의 부산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6월 20일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발표했다.⁶¹⁾ 부산부는 부산도시계획에

60) 『日本築城史』, 264쪽에 실린 장자등포대 위치와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98쪽에 실린 장자등포대 위치가 상이하다. 후후 다른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61) 부산은 1937년 부산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영선정과 송도, 북쪽으로 서면과 부산진, 동쪽으로는 해운대와 赤崎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망 사업이 결정되었다. 대연까지 도로망을 연결한 것은 赤崎지구의 공장과 군수창고를 잇는 것이었고, 도로망의 확장이 모두 부산요새지대의 범위와 일치했다.(김경남, 「1930~40년대 전시체제기 부산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34집, 한일관계사학회, 2009, 283~284쪽. 참고)

관해 진해요새사령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했다.⁶²⁾

5. 부산요새사령부 설치와 동남해안 방어

1940년 7월 일본은 육군평시편제를 전면 개정하는데, 본토방위와 방공(防空)을 가장 중시하였다. 이때 부산에 진해요새사령부를 이전하여 '부산요새사령부'로 재편성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진해보다 부산이 중시된 이유는 1941년 대소전 준비를 위한 '관동군특별연습' 시행에 따라 부산항을 통한 대규모 병력이동이 계획되었기 때문이었다. 육군의 러시아를 주적으로 상정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41년 6월 독일과 소련전이 시작되자 중포병연대를 속히 파견하고, 고사포요원을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진해만 요새와 나진요새에는 고사포 부대 요원이 임시 소집되었고, 요새 및 근교 도시, 군사시설의 방공 임무가 주어졌다. 7월 9일 조선해협요새계인 下關·壹岐·對馬 및 진해만 요새에 준전시령이 하달되었다.⁶³⁾

한편 조선 남해안 방어를 위해 여수에 임시요새가 구축되었다. 1941년 7월 7일 대본영에서 '제101차 특임편 제1호' 여수요새사령부, 여수요새중포병대 및 기타 부대를 임시로 편성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들 부대의 편성은 마산중포병연대의 책임 아래 7월 18일자로 완료되었다. 여수요새는 일본 전쟁 지도부의 생각과는 달리 중일전쟁이 신속하게 끝나지 않고 확대되면서 계획된 임시요새였다. 원래 서해안의 목포, 안면도, 인천, 백령도에도

62) 국가기록원, 『부산도시계획결정』, 1936~1944, 464~472쪽 (CJA0022542).

부산부는 1936년 진해만요새사령관에게 요새지대 내 측량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에 대해 '요새지대 제3구에 대한 계획은 해당 군과 긴밀히 협의할 것, 부산부 주변의 고지대는 전지방공진지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용시 반드시 군에 연락할 것, 유사시를 위해 도로망을 정비할 것(특히 해안도로를 따르는 간선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63)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34~35쪽, 99쪽.

임시요새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건설된 요새는 여수요새뿐이었다. 여수요새의 부대는 요새공사가 완료된 1942년 4월 28일 마산에서 여수에 도착하였다.⁶⁴⁾

부산이 전략적 중심지로 설정되면 각종 부대가 부산으로 집결했다. 1941년 4월 육군부산군수송통제부가 설치되고, 7월 진해만요새사령부와 마산중포병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방공대도 배치되었다.⁶⁵⁾ 11월에는 육군선박운송사령부 부산지부를 설치했다.⁶⁶⁾

1941년 12월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여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다. 1942년 7월 1일자로 진해만요새사령부의 명칭을 부산요새사령부로 바꾸었고, 진해만요새중포병연대도 주력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부산요새중포병연대로 개칭했다.⁶⁷⁾ 부산요새중포병연대는 해안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적의 비행기와

64) 신주백,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軍史』 제7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263~264쪽.

65)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櫻井書店, 2007, 19쪽.

66) 육군선박운송사령부 부산지부의 전신은 1906년 3월 개설된 육군운송부 부산출장소였다. 1907년 9월 육군운송부 인천지부 부산출장소로 개칭, 1909년 4월 육군운송부 부산지부로 개설되면서 조선내 각 출장소를 통합관할하게 되었다. 육군운송부 부산출장소는 1908년 부산 入江町 2정목 4번지에서 琴平町 1정목 1번지로 이전했다가, 1910년 신축청사 대청정 1정목 25번지(현 대청동 1가 64번지)로 이전했다. 1923년 4월 부산지부에서 부산출장소로 개칭되었다. 1926년 3월 조선 각 출장소 통합임무에서 해제되었다가 1938년 4월 원산과 청진의 출장소를 폐지와 함께 부산출장소를 축소하였다. 1928년 5월 출장소의 축소 정리로 종래 사용관리하던 토지건물의 대부분을 조선군 경리부에 반환하였다가 1932년 7월 축성부진해만지부가 폐지되면서 다시 육군운송부 부산출장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8월에는 조선경리부장으로부터 조선육군창고 부산창고〔支庫〕築町창고(142평 2곳)를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육군운송부장은 1937년 8월 제1선박수송사령부의 사령관을 겸했고, 1940년이 되면서 부산출장소는 지부 12곳 중 한곳으로 지정되었다. (朝鮮軍司令部, 『朝鮮軍歷史』 제4호, 1932. 129~130쪽. ; 『朝鮮軍歷史』 제5호, 1936. 4. 151, 213쪽.)

67) 『官報』, 1942년 7월 25일자(제4647호), 「告示」- 육군성 고시 제35호, 육군성·해군성 고시 제3호.

요새사령부의 편성과 업무에 대해서는 1895년 제정된 〈要塞司令部條令〉에서 알 수 있다. 제1조 영구 방어공사를 하여 수비해야 할 지역의 요새를 칭하고, 각 요새에는 그 지명을 붙여 00요새로 한다. 제2조에서는 요새의 크고 작음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 각 요새에 하나의 사령부를 두는데, 요새의 등급은 육군대신이 정한다. 요새사령부의 편성과 전시 지도계통은 요새사령관 아래 요새참모장이 하고, 참모장 아래 요새참모·부관·현병대장·포병부·공병부·통신장이 있고, 요새사령관 직속으로 이사·경리부장·군의부장·요새포병대장이 있다.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100~101쪽.)

합정으로부터 부산항을 방어하는 동시에 조선해협을 지나는 적함정을 공격하는 부대였다. 1942년 9월 편제 개정에 따라 6개 중대로 구성된 2개 대대에 999명을 편제정원으로 하고 있었다. 진해보다 부산항의 정면을 중시하여 수송동맥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군으로서는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부산요새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각종 포대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를 경비할 부대도 필요했다.⁶⁸⁾

부산에는 독립헌성여단과 고사포부대, 야전중포병부대, 수송 및 지원부대, 노무 및 경비부대가 배치되었다.⁶⁹⁾ 1945년 현재 장자등은 부산요새중포병연대 제1중대~제3중대, 절영도는 제4중대, 외양포는 제5중대, 지심도는 제6중대가 담당하였다. 특히 부산요새중포병연대의 핵심 병력이 집중된 용호동 장자등포대를 보강하고자 했다. 1945년 7월 조선해협을 폐쇄할 수 있는 화포를 보강하기 위해 장자등포대에 15cm 두께의 동굴진지 축성과 40cm 방탄벽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축성에는 조선인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⁷⁰⁾

방공(防空)을 위해 고사포 부대가 육지에 배치되었다면 잠수함 공격에 대해서 진해경비부는 쓰시마를 포함한 조선 남해안 전체를 담당했다. 1942년 3월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육군군수물자 수송선박이 남해안에 출몰한 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되거나 파손되었다. 남해안의 경비를 위해 진해경비부는 선박을 직간접적으로 엄호하기 시작했다.⁷¹⁾ 1942년 9월에 쓰여진 <진해경비부 전시일지(鎭海警備府戰時日誌)>에 따르면 진해방비전대로 對馬海峽防備部隊, 鎭海海面防備部隊, 釜山海面防備部隊 등 3개 부대가

68) 신주백,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군사』 제7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참고.

69) 1945년 3월 부산해안의 경비를 담당한 것은 특설경비부대였다. 그 전신은 철도경비부대이다. 406부대는 해운대에서 비행장복구, 407부대는 경남 사천에서 비행장복구, 415대대는 부산부에서 해안경비, 459대대는 부산부의 항만경비를 임무로 했다.(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61쪽, 附表 第五〈特設警備部隊 一覽表(1945.8.15.)〉.)

70)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101~102쪽 참고.

71) 海軍省, 『戰鬪詳報 2号潜水艦掃蕩戰』, 『昭和17年2月13日~昭和17年11月14日 佐世保鎭守府戰鬪詳報』 1942.2.~1942.1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8030330800).

편성되었다. 조선해협의 교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육군주요수송선박을 호위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부산해면방비부대는 영도에 防備衛所를 두고, 對馬해협방비부대는 거문도, 진해, 부산, 對馬島 미우라만(三浦灣)과 다케시키(竹敷) 등에 방비위소를 두었다. 거문도에는 특별히 포를 탑재한 함정 1척을 항상 대기하도록 했다.⁷²⁾

1944년 봄부터는 일본에 잠수함 출몰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격을 받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해안방비 강화와 잠수함 경계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⁷³⁾ 1944년 2월 쓰시마해협방비부대는 방비구역을 3곳으로 나누어 쓰시마·거문도·흑산도해면방비부대(對馬·巨文島·黑山島海面防備部隊)로 편성되었다.⁷⁴⁾ 1945년 1월 시점이 되면 흑산도 방면의 방어임무는 없어지고, 對馬해협방비부대, 진해육상방비부대, 거문도해면방비부대로 편제되어 있었다. 對馬해협방비부대에는 제1부대(진해해면방비부대), 제2부대(부산해면방비부대, 조선 영도), 제3부대(鄉崎, 鴻島), 제4부대(海栗島), 제5부대(若宮, 神崎), 제6부대(琴崎), 제8부대(沖ノ島, 魚釣崎)가 소속되었다. 거문도해면방비부대(鎮海防備戰隊 巨文島海面防備部隊)는 제9부대, 제10부대로 편성되었다. 특별감시초소를 각각 거문도, 우도·마라도에 두어 거문도와 제주도 근해를 모두 하나의 방어구역으로 했다.⁷⁵⁾

한편 조선 근해의 잠수함경계는 전적으로 해군이 담당하고 있었다. 소형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진해에서 관부연락선을 호위 하였는데, 남쪽의 선박항해와 대륙접안 항로를 선정하게 되자 새로이 '해상호위총사령부(海上護衛總司令部)'를 창설하여 조선근해의 잠수함경계를 강화시켰다.⁷⁶⁾ 구레

72) 海軍省, 「昭和17年9月1日～昭和17年11月30日 鎮海警備府戰時日誌(1)」, 1942.9.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C08030515300)

73)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147쪽.

74) 海軍省, 「昭和16年12月1日～昭和19年6月31日 鎮海防備戰隊戰時日誌(2)」, 1943~194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8030375500).

75) 海軍省, 「昭和20年1月1日～昭和20年3月31日 鎮海防備戰隊戰時日誌(1)」, 1945.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8030456900).

76) 1943년 11월 15일 해상호위총사령부가 신설되고, 1944년 12월 10일 제1 해상호위대를 편성했다. 上海-靑島-목포·마산·제주도-下關의 항로를 호위했다. 제1해방대, 제11해방대, 제12해방대, 제31해방대 등이 편제되었다. (위키백과사전 참고)

진수부(吳鎭守府)에 소속된 해방함대는 자원 수송을 위한 해상보급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선단엄호부대를 편성하여 일본-조선남서해안-중국을 오가는 선박을 엄호했다.⁷⁷⁾

육군에서는 평양 비행대와 1944년 4월 새로이 지휘 하에 들어간 서부군 비행대를 군산에 배치하고, 해군의 지휘 하에 초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비행대가 남태평양으로 파견되면서 해안경계가 중단되었다가 10월 관동군 독립비행 제66중대를 군산과 해운대 및 목포에 전속배치하면서 선단엄호 및 초계임무가 시작되었다.⁷⁸⁾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일본군의 전세는 기울었다. 1944년 6월 마리아나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하면서 언제든지 비행기로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게 되었다. 1944년 10월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하자 일본 본토는 일본군에게 최전선이 되었다.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에 대비해 1945년 1월 20일 본토전장화, 즉 '본토결전'을 결정하였다. 제17방면군은 미군의 상륙을 예상해서 군산 일대의 서해안과 부산항 중심의 동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병력을 집중배치하였다.⁷⁹⁾

1945년 조선에는 러시아를 방어할 나진요새사령부·영흥만요새사령부가 있었고, 미군을 방어할 부산요새사령부·여수요새사령부가 있었다. 부산·여수·목포 해안권을 중심으로 부대가 편성되고, 전쟁 준비를 위한 군용도로를 개설하고, 비행장과 지하벙커 등 군사시설 구축하였다. 1944년 12월 말 방위총사령부의 '조선군축성계획(朝鮮軍築城計劃)'에 따른 것이다. 남해

77) 海軍省, 「昭和20年4月1日~昭和20年4月30日 第12号海防艦戰時日誌戰闘詳報」, 1945. 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8030595000).

78)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148~149쪽.

79)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7개의 작전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지역을 제1호에서 제7호로 구분하여 '결호작전'을 시행하였다. 이때 한반도는 제17방면군이 담당하는 7호 작전구역이었다. 1945년 2월 17일 조선군사령부는 제17방면군(작전)과 조선군관구사령부(군정)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제17방면군은 대소(對蘇)작전 대신 대미(對美)작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작전임무를 변경하였다. 본토결전을 위한 조직체계 중 사령부는 용산에 두고, 전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병력은 대소작전을 위해 함경도에, 대미작전을 위해 남서해안과 제주도에 집중 배치하였다. (신주백,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군사』 제7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참고)

연안의 선박항해 및 정박지의 엄호, 연안방비 강화를 위한 주정기지 설정을 목적으로 했다.⁸⁰⁾ 여기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되었다.⁸¹⁾

미군의 공습은 1944년 6월 북규슈 지역을 시작으로 1944년 말 이후에 일본 본토 전역을 초토화했다. 그러나 쓰시마와 조선은 사정이 달랐다. 조선은 1945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함경도 나남, 청진, 흥남, 원산, 마산, 부산, 여수 등 공업도시와 항만도시가 공습 대상이 되었다. 공장과 항만에 대한 공습과 기뢰 투하가 있었고, 제주도와 남부 해안에 대한 기총소사가 행해져 통신시설과 철도 교량, 공장이 파괴되었다.⁸²⁾ 그러나 일본 본토에 비한다면 조선의 공습은 산발적이었고, 지역도 제한적이었다.⁸³⁾ 쓰시마에도 공습이 있었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다음날 미군의 소편대가 쓰시마 서해안에 나타나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폭격을 시작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지만, 미군의 공습이 한차례 정도에 그쳤다.⁸⁴⁾

1945년 2월 조선해협에 미군기의 위협이 가중되었고 대형선에 의한 수송이 곤란하게 되자 일본 내 자재·식량난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조선남해안에는 만주산 콩, 좁쌀 등의 화물이 적체되기 시작했다. 3월말부터는 미군의 일본 본토공습이 본격화되면서 대일수송을 방해하기 위해 항내에 기뢰를 투하했다. 일본은 소해정(掃海艇)의 항로개척으로 수송을 강행하거나, 구축함 호위 하에 야간운송을 실시했다.⁸⁵⁾ 그러나 물자수송은

80)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부록.

8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거문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주민 강제동원에 관한 조사』, 2006 :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병력동원에 관한 조사』, 2007 : 『일제시기 조선 내 군사시설 조사』, 2008. 참고

82) 부산의 중요군수공장으로서는 선박수리를 맡았던 영도의 조선중공업, 加藤제작소, 조선고무 등이 있었다. 더욱이 연료확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시기 영도에 석유저장시설이 있었고, 인근 울산에 조선석유회사가 있었다. 미군의 폭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곳이었다.(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56쪽. 102~103쪽.)

83) 정혜경, 「매일신보를 통해 살펴 본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방공정책과 프로파간다」, 『崇實史學』, 제27집, 2011.12. 46쪽.

84) 永留久恵, 『対馬国志-近代・現代編 戦争と平和と国際交流』, (株)昭和堂(長崎), 2010, 81~84쪽.

85)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II, 일월서각, 1989, 147쪽.

정체되었다.⁸⁶⁾

미군은 잠수함 작전에 의한 봉쇄와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전략 폭격을 중심으로 했다.⁸⁷⁾ 따라서 조선이나 일본에 미군이 상륙하지는 않았다.⁸⁸⁾ 미군의 폭격과 해안봉쇄에 대비해 일본도 요새를 정비하고, 비행장을 건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군사력은 절대적인 열세였다.

6. 맺음말

일본이 군사적 거점으로 부산을 이용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준비를 위해 가덕도에 진지를 구축하면서였다. 이후 1907년 12월 가덕도, 거제도도를 포함한 진해만 일대를 '진해군항'으로 설정했고, 이것은 그 해 4월 제정된 일본의 '제국국방방침'과 연관된 것으로 공세적인 전략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었다. 해군은 진해만을 일본 해군지구에 편입했고, 육군은 진해-쓰시마-사세보를 '조선해협'으로 묶어 해로를 확보하고 해협을 방어하고자 했다. 대륙침략을 위해 조선 남해안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동해안의 제해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86) 4월 19일 일본 최고전쟁지도회의에서는 운송력 확보를 위해 <국가선박 및 항만 일원운영 실시요강>을 결정하고 27일 각의결정을 거쳐 실시했다. 1945년 부산에는 수송, 항만운영의 실무를 담당할 기관은 남선선박대였다. 남선선박대는 수송업무(물자수송, 군인과 군수품 수송), 선박 및 항만운영(선박수리 및 정비보급, 선원관리), 항만 호위·방공대책의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1945년 7월에는 급증하는 선박파손으로 병사와 선원들의 피해가 잇달았고, 물자수송도 정체되었다.(노기영, 「日帝末 戰時海運과 釜山港 關聯 資料疏概」, 『港都釜山』 제21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5.9. 참고.)

87) 미군의 폭격에 대해 일본에서는 1943년 12월 <도시소개실시요강>을 결정하고, 1944년 1월 일부 지역부터 시행했다. 조선에서는 1945년 4월 5일 <조선내 중요도시 소개요강>을 공포하고 4~6월 소개를 완료하기로 했다. 부산의 소개지역으로는 광복동 소화동(충무동), 대청정(대청동), 여주정(영주동), 초량천(초량), 범일정(범일동)이었다. 건물소개와 달리 자율적 소개를 시행한 인원소개는 지지부진했다.(김인호, 「1945년 부산지역의 도시소개(疏開)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12. 참고.)

88) 손경호, 「태평양 전쟁 말기 한반도에 대한 미군과 일본군의 의도와 준비 : 인식의 일치와 행동의 불일치」, 『미국사연구』 제30집, 한국미국사학회, 2009. 참고.

부산이 요새지역으로 완전히 포함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워싱턴 군축 회의 이후였다. 일본은 '제국국방방침'을 2차례 수정했다. 1918년 1차 수정한 방침에는 러시아·미국·중국을 나란히 가상의 적으로 상정했고, 1923년 2차 수정한 방침에서는 미국을 제1주적으로 했다. 경제봉쇄에 대비해 중국의 자원으로 미국·러시아와 전쟁을 치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동해를 '내해(內海)'로 설정하여 일본군으로 해상을 봉쇄하고, 태평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해군 군함의 구축을 늘리고, 태평양지역에 점령지를 확대하면서 해군 병력이 이동하자, 그 빈자리를 육군이 채웠다. 1922년 '조선해협요새계' 구축은 해상·육상·상공을 방어하는 체계로 계획되었다. 1924년 진해요새는 진해만을 제1구역으로 부산(영도와 적기만)을 제2구역으로 설정되었다. 1구역은 해군이 2구역은 육군이 담당했다. 부산에 장자등포대를 축성하면서 부산항과 조선해협을 직접 방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사정거리 30km의 포탑을 탑재한 부산 장자등포대-쓰시마 도요포대-이키 쿠로자키 포대는 조선해협에 적 함선의 출입이 불가능한 방어막을 만들었다.

이렇듯 제해권에 대한 방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갔던 반면 제공권에 대한 준비는 미미했다. 1920년대 방공(防空)의 중요성을 언급하긴 하지만, 작전에 옮긴 것은 1930년대 후반 들어서였다. 1931년 일본군이 노구교 사건을 일으키고, 1932년 만주국을 세우면서 물자와 인력의 상당부분이 부산항을 통해서 만주와 일본 간 이동이 진행되었다. 1936년 일본은 3차 개정 '제국국방방침'을 결정했다. 미국과 러시아를 제1 적국으로 설정하고, 선제 공격과 속전속결 방침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요새건설방침을 수정하여 '조선해협요새계'-일본-가라후토-치시마를 잇는 동해를 '내해'로 만들고, 일본-오키나와-대만을 잇는 남서해를 '외해'로 만들었다.

1937년 중일전쟁 직후 진해만요새에 '방공전비(防空戰備)'를 하달하고, 10월 진해만요새를 확대했다. 장자등포대에 세 번째 포대를 추가 구축하고, 기장·영도·거제도에 새로이 포대를 만들었다.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화포보강과 항공전력의 공격에 대비한 중소구경 포를 배치한 것이다. 1940년 '부산요새사령부' 신설을 계획하고, 진해요새사령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1941년 부산요새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물자와 인력을 나르는 거점인 부산항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것과 연관이 있었다. 포대를 구축하고 고사포부대를 증강하지만, 1942년부터 나타난 미잠수함, 1944년 본격화된 B29의 폭격은 막을 수 없었다. 해안은 봉쇄되고, 육지는 폭격 대상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계의 변화에 따라 부산의 요새가 어떻게 구축되어 갔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산요새에 대한 개략적인 면을 정리하는 정도여서 앞으로의 과제가 많아졌다.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변화와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에 대한 연구, 특히 1941년 진해요새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1942년 부산사령부로 개칭되는 시점부터 1945년까지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요새화가 부산이라는 지역에 미친 영향, 부산과 함께 '진해만요새'였던 진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이 숙제로 남았다. 앞으로 연구를 더 진행하여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원고투고일 : 2012. 10. 1, 심사수정일 : 2012. 11. 26,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일본군, 부산, 진해, 요새, 쓰시마(對馬島), 대한해협, 러일전쟁,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ABSTRACT>

Japanese Forces' Defense System & Fortress in Bu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Yun-mi

There still exist some military remains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Busan, such as the Japanese military post at Gadeok-do, and Jangjadeung artillery unit at Yongho-dong, etc. This is to look into the changes and processes of fortress construction in Busan from the 1900s until the 1940s.

It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ir stronghold at Gadeok-do in preparation for the 1904 Russo-Japanese War that Japan perceived Busan as their proper military foothold. Since then, Japan set up the Jinhae Bay area including Gadeok-do and Geoje-do in December, 1907. Jinhae Bay was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navy zone while the Japanese army planned the fortress construction by binding Jinhae-Tusushima-Sasebo together through the setup of 'Joseon Straits System.'

It was after World War One and the Washington Conference on Disarmament that Busan was completely included as a fortified zone. In 1922, construction of 'Joseon Straits Fortified System' was planned as the one for the sea, land and air defense.

In 1924, Jinhae fortress was set up with Jinhae Bay as Zone 1 and Busan as Zone 2. Such a series of strategies were aimed at preparing a defense shield which would make impossible the access of the enemy fleet.

However, Japan made arrangements for the defense against the command of the sea in some degree, whereas preparations for the command of the air was slight.

They commented on the importance of the antiaircraft defense in the

1920s, but it wasn't until the late 1930s that the air defense strategy was put into a military operation.

Immediately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the Japanese government issued an order of 'Combat Readiness for the Air Defense' to the fortress of Jinhae Bay, and expanded Jinhae Bay in October. They organized a new artillery unit at Gijang, Young-do, and Geoje-do including the Jangjadeug artillery unit. In 1940, while putting the most emphasis on the air defense, they planned to establish 'Busan Fortified Headquarters', and switched its name to 'Busan Fortified Headquarters' after relocating the Jinhae Fortified Headquarters to Busan. However, such air defense installations failed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US B-29 air raid which kicked into high gear in 1944.

The Japanese forces switched to straits blockade for control of the sea from securing sea routes of vessels while switching to control of the air for the defense against a bomber, or an air-defense-centered system from the defense against a submarine. As Busan was gradually expanded in its scope of a military zone, artillery units had to be deployed at the key areas in Busan.

Key Words : Japanese forces, Busan, Jinhae, Fortress, Military Installations, Tushima, the Korea Strait, Russo-Japanese War, Sino-Japanese War, Asia-Pacific War